주택담보대출 잔액 첫 500조 돌파

가계 빚 증가세 '지속'… 6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1조 7천억 늘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500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 들어 최대 증가액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2월 도입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도 5월부터 시행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6000억원을 기록하다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4조4000억원, 4월 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이후 5월 4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에는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서울시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17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실거래 조사가 시작된 이래 6월 거래량으로는 10년 만에 최대치이고 올 들어서도 가장 많은 건수다.

13일 기준 거래량은 5534건으로 지난해 7월(1만1942건)의 절반에 다가섰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도 한 달 동안 1조7000억원 늘어 올 들어 두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6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조6000억원 증가한 667조5000억원을 기록, 올 들어 두번째로 큰 증가액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7000억원으로 올 들어 가장 큰 수치로 조사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분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이 이뤄지고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한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의 증가폭은 5월 3조7000억원에서 6월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동기간 대기업대출 감소액은 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안진수 기자

휴비스는 모두 230여명에게 주변식당과 연계된 식사권을 지급하거나 쌀, 부식 등 식자재를 직접 배달한다.

휴비스, 도내 초등학교에 식사지원금 전달

휴비스(대표이사 사장 유배근)는 13일 도내 3개 초등학교에게 '희망키움 건강한 방학나기 식사지원' 지원금을 전달했다.

'희망키움 건강한 방학나기" 식사지원' 지원사업은 2012년 시작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교육,물품,식사 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팔복 초등학교, 반월 초등학교, 조촌 초등학교의 3개 초등학교다.

휴비스는 모두 230여명에게 주변 식당과 연계된 식사권을 지급하거나 쌀, 부식 등 식자재를 직접 배달한다.

휴비스 전주공장장 윤필만 상무는 "휴비스는 모사인 SK케미칼 및 삼양사 때부터 50여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를 계승해 소외 받는 어린이 및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비스는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희망키움 연탄배달' 및 도서, 책상, 컴퓨터, 학용품 지원 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물품지원',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키움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희망키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광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농업기반시설물 · 공사현장 예찰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물 1,916개소와 공사현장 94개소에 대한 예찰 강화에 나섰다.

김학원 본부장은 "7월까지 전북 강수량 726㎜로 평년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가뭄이 아닌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어민들이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동화댐외 1,915개소의 농업기반시설물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해빙기 안전점검 등 총 5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대비 공사현장 84개소 안전점검을 지난 6월까지 완료했다. /신광영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15~17일 진도모피그룹 초특가전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오는 15~17일, 6층 행사장에서 '진도모피 그룹 초특가전'를 진행한다.

진도모피와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공동 기획한 대형행사로써 최대 80%까지 세일한다.

이번 행사는 진도모피, 엘페, 끌레베, 우바 브랜드가 참여 3/5/7만원대 블라우스재킷, 반코트, 균일가 행사와 1백만원대 밍크베스트, 고가 희귀 세이블 모피까지 젊은 층부터 혼수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사기간 중 스페셜 이벤트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존 모피의류를 더욱 멋지게 리폼해 드리는 모피 리폼 서비스(브랜드 무관, 비용별도 상담)와 구매 금액대별로 밍크 핸드폰고리, 밍크 장갑, 렉스 머플러와 롯데상품권 등 다양한 증정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여성패션 이현 미파트리더는 "한여름에 모피행사는 대표적인 겨울 상품인 모피를 고객들께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역 시즌 마케팅인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회사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평소 고가 모피를 구매가 망설였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쇼핑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저지 위해 전주소상공인 뭉쳤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13일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최진원)과 전주시 나들가게번영회, 전주시 중소유통 대리점협의회 임원 및 관계자 등 30명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대책위원장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을 선임했다.

또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입점이 무산될 때까지 반대 서명운동과 전주시에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신광영기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관계자 30명은 대책회의를 가졌다.

7월 이후 식품 이물 신고 급증

기온 · 습도 상승이 원인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7월부터 10월까지 식품에 벌레·곰팡이 이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접수된 이물 신고 건수 3만2902건을 분석한 결과 7월 이후 부터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벌레가 나왔다는 이물 신고 1만2343건 가운데 8~11월 신고건이 6005건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곰팡이가 나왔다는 신고 3182건 중 전체의 46.2%인 1469건이 7~10월에 집중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에는 식품에서의 이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품의 보관과 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벌레 이물질은 면류가 2791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고, 커피 1893건(15.3%), 시리얼류 1118건(9.1%), 과자류 1062건(8.6%) 등에서 많이 발견됐다. 쌀벌레로 불리는 '화랑곡나방'은 주로 어두운 벽면이나 골판지 박스 틈새 등에 많이 서식하며 유충이 포장지를 뚫고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식품을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한다. 시리얼 등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온라인 거래나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박스를 제거한다. /안진수기자

전북개발공, 고객맞춤형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월까지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입주민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고객맞춤형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오는 8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6,870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전주평화 74세대, 익산송학 62세대 등 6개 단지 국민임대 총 136세대이다.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약자 사전 시설점검, 쓰레기분리수거장 비가림 시설, 가로등 및 복지관 천정 새시 설치 등 13개 단위 사업이다.

이와함께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완주 및 익산권 전문 수선유지업체를 통해 나머지 입주민 불편해소에 나선다. 사업은 쓰레기분리수거장 비가림 시설, CCTV, 가로등 설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비가림시설(전주평화, 익산송학), 단지주·부출입구 CCTV 설치(익산배산), 취약지 가로등 4개소 추가설치(혁신1단지), 복지관천정 새시 등 설치(혁신2단지), 도서관내부 블라인드 및 CCTV설치(혁신3단지) 등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공사는 2013년부터 관리중인 국민·공공임대주택 6개단지에 대해 '입주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생활공간 개선 등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에도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대주택 단지내 야외운동기구, 주민복지관 비가림시설, 옥상 방화문 개폐장치, 수변시설 난간대, 채광창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신광영기자

기사제보 288-9700